

부로일러 의

경제적 출하일령



이 재 근

<고대 농대교수>

1. 서 언

부로일러 양계에 있어서 그 경영수익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육성을(생존율), 발육속도, 사료요구율, 상품가치 등을 들수 있다. 우리나라의 작금의 부로일러 시세는 1kg당 150원~250원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부로일러 생산업자들은 생산의 과학화에 의한 생산비의 절감보다도 오히려 시세만에 경영운명을 맡기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빈망하기 그지 없다. 작년 여름철의 부로일러 공황기의 예만 보더라도 150원~180원의 매우 낮은 시세이기는 했지만 95% 이상의 육성을, 8주체중 1.4kg이상, 8주 사료요구율 2.3~2.4, 상품가치 95%이상의 우량품을 생산한 부로일러 생산자이었다면 180원의 최고 시세를 받을 수 있어서 적어도 생산비에 대한 결손은 면했을 뿐 아니라, 적기는 했지만 다소의 흑자를 보았던 사실을 우리들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부로일러의 시세가 안정되고 또 높아질 것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간절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평균 부로일러 시세는 아직도 여러 선진외국에 비하면 월등 높은 것이 사실이다. 수요의 증대 보다 공급의 증대율이 항상 앞설 것이 예상되는 우리나라 육계수

급의 전망일진대 육계생산에 종사하는 분들은 종래와 같은 안이(安易)한 사고 방식을 버리고, 어디까지나 경영의 합리화와 생산의 과학화에 치중하여 생산비를 가능한한 절감하는 것만이 수익을 지향하는 유일 무이한 수단임을 깨달아야 되겠다.

2. 부로일러의 경제적 출하일령

부로일러의 출하를 어느 일령(日齡)에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가? 하는 문제는 계종(鷄種), 사료, 관리, 계절, 시세의 변동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겠으나 여기서는 주로 필자의 시험성적(한국축산학회지, 제11권, 제3호 p.270~278, 1969) 중 부로일러 전용종에 대한 것에 의하여 검토 하므로써 참고에 하고자 한다.

그러면 표1에 의하여 제4주령 이후의 각 주령별 출하의 경우에 있어서의 수익성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4~6주령에 출하하는 분들은 없지만 우리나라 육계의 실제 수요경향이 영계(400~600g) 또는 영양센터용(700g~1kg) 등 작은 것이 많고 또 종전과 같이 산란용계의 감별용추(♂)에 의한 영계생산도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므로 이 계제에 부로일러 전용종에 의하여 영계 또는 센터용 부로일러로 출하하였을 경우

<표 1.> 부로일러리 발육속도 및 사료요구율(1수 평균)

	초생후	1주령	2주령	3주령	4주령	5주령	6주령	7주령	8주령	9주령	10주령
체 중	35g	72	165	191	477	672	898	1,175	1,452	1,726	1,898
중 체 량		37	93	126	186	195	226	277	277	274	172
수당사료섭취량		59	138	242	336	450	572	606	713	772	851
사료요구율수당		1.52	1.48	1.93	1.81	2.23	2.53	2.18	2.57	2.82	5.26
" 누계			1.49	1.70	1.75	1.89	2.06	2.09	2.19	2.29	2.54

〈표 2〉

주령별 출하시의 수익 비교(1수당)

주령	수입	지출			수익
		육계판매대	초생추대	사료대	
4	98원	70원	32.55원	102.55원	-4.55원
5	134.40	70	51.45	121.45	12.95
6	179.60	70	75.38	145.38	34.22
7	235.0	70	100.74	170.74	64.26
8	290.37	70	130.61	200.61	89.76
9	345.20	70	162.92	232.92	112.28
10	379.53	70	198.22	268.22	111.31

(주) 1. 육계판매대 : 1kg당 200원, 단 4주령것은 영계 1수당 생산자가격

2. 사료대 : 1kg당 5주까지 42원, 6~9주 41.84원, 10주령 41.5원 (1969년 6월 현재)

가상하여 경제성을 분석 검토해 보면 표 2와 같다. 수입에 있어서는 육계판매대, 지출에 있어서는 초생추대 및 사료대만으로 산출하였고, 전비, 약품대, 광열비, 급리, 감가상각비 등 편의상 제외하였다.

이 표를 살펴보면 4주령 출하의 경우는 4.55의 결손을 가져왔고, 5주령에는 12.95원, 6주에는 34.22원, 7주령에는 64.26원, 8주령에는 76.76원, 9주령에는 112.28원의 조수익을 나타내 있어서 각 주령별로 현저한 수익의 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0주령에 있어서는 111.31원으로 9주령에 비하여 0.98원의 적기는 하지만 수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표에서 수익지수로 비교한 것을 보면 4주 -0.4, 5주령 11.6, 6주령 30.5, 7주령 57.2, 8주령 79.9, 9주령 100.0, 10주령 99.1로서 9주 출하의 경우에 가장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 수익지수에 있어 각주간의 증가율 보면 4~5주는 11.2%, 5~6주는 23.4%, 6~7주는 26.7%, 7~8주 22.7%, 8~9주는 20.1, 9~10주는 -0.9%로서 출하주령의 차이에 의해서 최고 1수당 26.7%의 수익증가를 가져온다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표를 응용하여 최고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9주령 출하의 경우와 꼭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타 주령에 있어서의 가상적 육계 1kg당 단가를 산출해 보면 9주령 판매대 200원일 때 8주령 237.74원, 7주령 293.78원, 6주 384.41원, 5주령 513.69원으로서 육계의 크

기와 차이에 의하여 가격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겨우 10~20원 정도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9주령 출하의 경우에 있어서의 수익을 도저히 보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1의 실험성적에 나타난 각 주령별 체중 및 사료요구율이 비교적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때 9주령에 출하하는 것이 가장 수익성이 높으며, 또 설사 센터용 등으로 1kg내외의 작은 것의 가격이 다소 높다 손 치더라도 9주령 1.7kg정도의 체중으로 출하할 경우의 수익을 도저히 따라 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표1의 10주령에 있어서 9주령 증체량이 274g인데 비하여 10주령의 증체량은 172g로서 37%나 감소하였고, 또 주당 사료요구율에 있어서도 2.82에 비하여 5.26으로 거의 배나 나빠지고 있으나 이 10주령의 성적은 시험당시의 기온이 최고 30°C이 었으며, 또 심한 밀사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사료요구율도 매우 나빴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온이 30°C이하이며, 밀사를 하지 않을 경우라면 증체량에 있어서는 적어도 9주령의 증체량인 274g을 능가하는 것이 정상적 발육이라고 보겠으며, 사료요구율에 있어서는 3.0정도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경우는 10주령에 출하한다면 수익증가율은 9주령이 비하여 다소 떨어지더라도 총수익액은 향상할 것으로 본다.

3. 결 론

본고에서는 지출부분에 있어서 초생추대와 사

부로일리의 출하일령

로대 만을 보았기 때문에 9주령 이전에 출하할 경우는 상대적으로 회전속도가 빨라지고, 경상비가 체감되며 시설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의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기 출하를 할 경우는 다소의 생산비의 절감이 되는 이점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출하일령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사료요구율의 개선이다 하겠다.

경영지출의 60~70%를 차지 하는 사료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육속도를 빠르도록 개선함에 있다.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표1에서 9주 체중 1,726kg, 누계사료요구율 2.29일배 사료비는 표2와 같이 162.92원인데, 가형 9주에 체중 1.5kg, 사료요구율 2.6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사료비는 163.02원으로 1,726kg를 생산했을 때와 같은 사료비를 지출하게 되므로 그 수익에 있어서는 육계시세 1kg당 200원일 경우 45.2원

의 수익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실험성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9주령 1.7~1.8kg에 출하할 경우는 다른 주령 보다도 수익이 높다 하겠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로일리 수.규격을 보면 최고 1.8~2.0kg정도이며, 클 수 판매하기 힘든 형편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한다면 1.7~1.8kg을 최종 목표 출하체중으로 정해야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는 목표체중인 1.7~1.8kg생애 소요되는 시일을 하루라도 앞당기므로써 사료요구율을 월등히 개선하여 결과적으로 사료를 절감하고, 부로일리 경영수익을 개선해야 것으로 생각한다.

실지에 있어서 작금의 예를 들어 보면 8주에 1.7~1.8kg을 생산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굳이 9주령 까지 하를 연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겠다. □



건국 사료

건국배합사료공업주식회사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실험공장

서울특별시성동구저암동544-7 TEL. 직통55-2294 교환55-0061 9